

5

5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 초산모돈이 많아지면...

“자돈들이 이상해요. 상무님, 이리루 와 봐요”

아침에 현장에 올라가자마자 분만사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급히 도움을 청한다. 아주머니를 따라 한창 분만이 터지고(?) 있는 돈방으로 들어갔다. 14복의 분만 대기모돈 중에 4복이 이미 분만을 했는데 그중 2복의 갓 태어난 포유자돈들이 몸을 유난히 떨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무도병(舞蹈病 : congenital tremore)이군... 걱정스런 눈길로 나를 바라보던 아주머니가 그게 뭐냐고 물었다. 양돈장에서 일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 처음 보는 질병이 무섭기도 하겠지. 근데 아프긴 돼지가 아프는데 왜 날 그렇게 걱정스런 눈길로 바라보는데?

“새로운 질병이 생겨서 돼지가 많이 죽으면 상무님이 사장님한테 혼나지 않아요?”

말하자면 내가 짊어질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게다. 이정도로 짊어질 목이면 양돈장에서는 수백 개도 부족해요. ㅋㅋㅋ... 하긴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돼지질병이 어디 한두 개인가?

“오늘 본 건 무도병입니다. 정식 수의학명칭은 '선천성 근진전증'이라고 하지요.” 오전 분만사팀원 모임에서 얘기를 꺼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유전적인 문제, 살충제 등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익히 들어왔던 썬코바이러스의 또 다른 종류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바이러스가 우리 농장에도 있다는 얘긴가요?” “...아마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왜 전에는 별로 없다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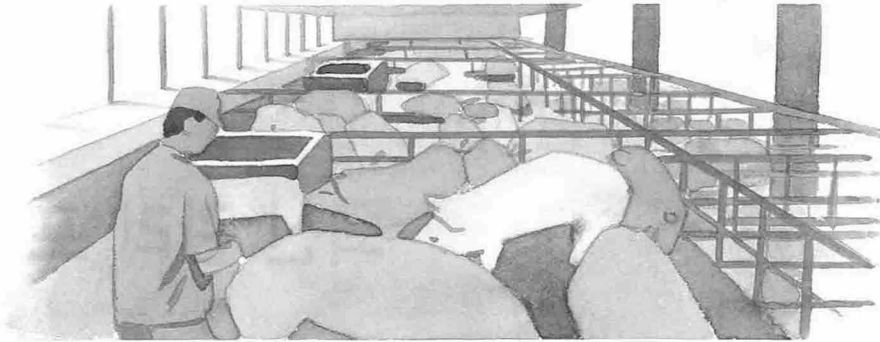
“그 이유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아마도 초산 모돈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돈군의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럴 겁니다. 그런 자돈이 나오는 경우에 모돈들이 모두 초산돈이나 잘해야 2산차 정도 되지요?”

사실이 그랬다. 이미 년 초부터 지금까지의 선천성 근진전증 발생 기록을 조사해 보니 전부 초산 모돈이나 2산차 모돈의 자돈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다.

“최근에 우리 농장에서는 다소 비정상적 산차구성을 바로 잡기 위해 서둘러 일을 하다 보니 초산 모돈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한 요인으



황 윤 재 상무  
금오BPC



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농장에서 초산모돈의 비율이 높아지면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문제들도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발성 대장균증이나 괴사성 장염의 발생으로 1주령 이내의 설사증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분만사에서 초산모돈의 분만이 많아지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 농장에 아직 이런 피해가 아직 없다는 게 사실은 무척 다행스럽다고나 할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요?”

평소에 어지간히 말이 없던 이씨 아저씨가 간만에 입을 열었다. 특히나 회의시간이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 사람인데 자돈이 달달 떨고 돌아다니는 게 꽤나 신경이 쓰였나 보다.

“선천성 근진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사 팀에서는 후보돈에 대한 순치를 적절히 해주면 좋습니다. 즉, 후보돈이 교배에 들어가기 전에 늙은 번식돈의 똥오줌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는 교배 한 달 전쯤에 한 일주일간 교배사로 들여 보내서 적절하게 감염시키는 방법도 좋습니다.”

“저렇게 떠는 자돈들은 치료할 수 없나요?”

“네,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다만 태어났을 때 몇 번 포유를 도와주어서 초유섭취나 포유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폐사율을 만족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조적으로 경구용 영양제를 짜먹이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지요. 그렇게 열심히 먹이다 보면 몸집이 커가면서 떠는 증상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일전에는 초산모돈의 자돈은 다른 병에도 잘 걸린다고 했잖아요?”

“사실입니다. 초산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은 지금 말씀드린 선천성 근진전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질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 초산돈의 임신말기에 이런저런 백신을 다른 산차의 모돈보다 더 많이 접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농장마다 백신프로그램이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농장에서는 과거에 조발성 대장균증이라던가 괴사성장염의 발생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알맞은 백신프로그램을 초산모돈에 추가 적용하는 겁니다.”

갑자기 임신사가 돼지들 울음소리로 소란스러워졌다. 어느새 오후 관리시간이 되었다는 얘기가. “자, 관리 들어갑니다.” 분만팀장이 크게 얘기했지만 관리자들은 이미 하나 둘씩 사무실 문을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양돈**